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5일 수요일 음 3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밤에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1℃, 낮 최고 기온은 16-17℃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성 산, 20%, 고 산, 20%, 서귀포, 20%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해돋이 06:04, 해질 19:05, 달뜨기 01:45, 달지기 11:54, 안개 05:35, 안개 16:36, 안개 23:16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내일, 구름 많음, 10/20℃, 모레, 흐리고 비, 15/21℃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보통

월드뉴스

산불 체르노빌 앞 접근... 정부 위험성 은폐

방사능 노출 우려 일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고 원전 코앞까지 접근하며 방사능 유출 우려가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산불.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국은 체르노빌로부터 약 90km 떨어진 수도 키예프에서는 모든 방사선 수치가 정상 수준이라면서 '종말론적 경고'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폐원자로와 같은 민감한 시설들과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일부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버려진 도시인 프리피야티까지 번져 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는 고작 2km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과 함께 정부가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성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건강&생활



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단계를 선언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다행히 대구·경북에서의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1만명을 넘어선 확진자와 22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지역사회의 감염단계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유행지에서 들어온 감염 사례와 1차가족 감염 외에는 아직까지 지역 내 전파 조건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선제적 조치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공항과 항만에서의 발열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의심환자를 선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 돌봄 필요하다

별하고 확진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학 조사와 발 빠른 방역조치를 시행한 제주도 방역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와 더불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한 도민들 덕분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도의 경우 대규모 사태에 대비한 병상확보와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치료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민안심 병원을 지정해 외상, 암, 만성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대책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 자원봉사 의료인 파견,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사회에서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된 도민수칙을 안내하고, 공항발열감시 의료진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치료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감염병 대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반 중증환자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 공립병원인 제주 의료원을 감염병 특화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실제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소외감,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어디선가 확진자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태가 확산되는데 대한 분노와 점점 고립되어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다. 최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가족감염'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감염으로 인한 가족 및 타인의 감염'과 '자신의 감염으로 직장 및 다른 사람에 피해' 등 본인 감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응답자의 42.5%는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우울감과 불안감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방역'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신속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자력을 다시 발휘해야 할 때다.

열린마당

허물벗기와 청렴



강치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뱀은 보통 10년을 산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2-3번 탈피를 하니, 뱀은 평생 20-30번의 허물을 벗는다.

뱀은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딱딱해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허물 안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청렴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치아를 세 번 닦듯이 매일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 경영학 측면으로 보면 단순한 사업의 원리인 Plan(기획)-Do(실행)-See(환류)라고나 할까.

최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이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생각한 후에 말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했다면 과연 그런 실

수들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직자들도 앞서 말한 뱀과 같다. 허물이 있는데 탈피를 하지 못하면 그 허물 안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일일삼성(一日三省, 하루에 세 번 반성)을 통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루가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롭게)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상위권인 13위를 차지했다. 2017년 26위에서 수직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사회의 청렴이 갈 길은 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하는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사회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2018년 기준 무려 40.9%이다. 이 수치를 보면 공직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가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의 허물을 되새기고 청렴을 행동으로 옮겨 일반시민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책과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진승량

한라도서관 문헌정보과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햄버거 매장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고 속도는 높이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도입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라도서관은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지난달 11일부터 도입했다. 여유 공간이 생긴 주차장 앞을 지나면서 미리 신청한 도서를 차 안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중과 주말로 나눠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휴관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다른 공

공도서관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비대면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도서 예약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1인 5권까지 가능하며, 다 읽은 도서는 무인 반납기를 이용해 반납하면 된다.

지난 한달 동안 한라도서관에서는 3500명에게 1만1000여권의 도서가 드라이브 스루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를 통해 제공됐다. 코로나19도 도민들의 독서에 대한 열기를 꺾지 못했다.

쌍둥이 우주비행사로 유명한 스콧 켈리는 1년 가까이 우주에서 보냈던 고품생활을 극복했던 경험을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는데, 그 중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이 책이었다고 말했다. 극도로 격리된 환경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다름 아닌 바로 '책 읽기'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들 움츠러들고 있지만, 도민들이 드라이브 스루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고 책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하기를 희망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Original dimchae' featuring various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nd freezers. Text includes 'The Original dimchae', '위니아 덤채 전품목 할인행사',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주)대유위니아 제주점.